

21세기 맥시멀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mative Beauty of Maximal Look in the 21st Century

변혜진·박선경⁺

Byun, Hye Jin · Park, Sun Kyung⁺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ndset and mentality of modern people in new millennium by examining types and values of maximal look, which expresses various preferences and sensibilities of the 21st century, and identifying its formative beauty.

Maximalism has been formed amidst of glocalization, e-businessman and hybrid. As the barrier between two conflicting concepts, global and local broke down, glocalization in multicultural era has been expressed even through fashion that is influenced by cultural phenomena most sensitively. E-business man style, which is the core of cultural trend in the 2000s, is regarded as an important motif for the 21st century's fashion. These new cultural codes have been spreading rapidly. Hybrid is a phenomenon of combining two different genres. It has been appealing as a source of new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fashion. It is also a code to interpret complex fashion trend of multiculturalism. In this background, bright, splendid and decorative fashion was appearing at the dawn of millennium, among which was maximal look. It is a new aesthetic tendency of diversity and abundance. It is emotional, decorative, feminine and delicate. Ribbons, laces, ruffles, sparkling cubic, beads, abundant colors and layered characterize this style.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modern people tried to overcome the chaos at the end of the century and restore human nature through maximal fashion to destroy contradictory and dual images in the subconsciousness and discover message of hope and bright romanticism. They also pursued maximal look to shake off gloomy mood of war and terror and express value and individuality through handicraft, purity and warmth, excluding artificial beauty. In the trends of pluralism,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fashion, therefore, maximal look gives unlimited potential to modern fashion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in the in the future.

Key Words : Maximalism, Glocalization, E-Businessman, Hybrid, Maximal Look

I. 서론

‘지구촌 사회’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세계이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automation), 가상공간(cyberspace)으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최대한의 시간을 사용하는 시대이므로 현대인들은 평범한 것을 거부하며, 때로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신비롭게 유일한 개성을 표현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패션은 1980년대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복식현상들이 대체로 미니멀한 경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새천년 사회분위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대표적인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새천년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도한 장식과 과장된 실루엣, 화려함을 추구하는 맥시멀 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움 추구를 위한 극단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물려 새롭고 신선한 감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 룩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맥시멀 룩의 가치를 발견하고 맥시멀 룩의 조형미를 규명함으로써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알아보고 정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음에 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 룩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맥시멀 룩의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맥시멀 룩에 내재된 조형적 가치를 도출하여 조형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로서는 연구 분야의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수집한 실증적 연구의 시각적 자료는 국내·외 패션전문잡지 및 신문, 패션저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S/S~2007년 S/S까지로 정했는데, 지난 몇 시즌동안 트렌드로 영향력을 미쳤던 minimalism이 maximalism으로 2000년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맥시멀리즘의 개념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maximalism)¹⁾이란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반대되는 개념

1) maximalism: 최대한이라는 의미로 지난 몇 시즌동안 트렌드로 영향력을 미쳤던 minimalism이 maximalism으로 2001년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맥시멀리스트라는 미학으로 다시 회귀한

념으로써 인간의 감성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의복의 여러 요소를 최대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맥시멀리즘의 개념은 패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나며 60년대의 팝, 70년대의 핑크, 혹은 로코코나 바로크 양식의 건물, 세계정부의 최대한론 등에서 극대주의, 과장 등의 단어로 의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채로 반영되고 있다.²⁾

“더 많은 것이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맥시멀리즘은, 미니멀리즘과는 모든 면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미니멀리즘이 축소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맥시멀리즘은 확대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스(John Barth)³⁾는 음식물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미니멀리즘을 저칼로리의 규정식에, 맥시멀리즘을 칼로리가 풍부한 영양식에 각각 비유한 바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도 맥시멀리즘은 바로크 시대의 건축 양식을 연상하게 할 만큼 장식적이고 수식적인 스타일을 즐겨 사용한다. 주로 구어적인 단순한 언어에 의존하는 미니멀리즘과 달리 맥시멀리즘에서는 고양된 표현이나 길이가 길고 난해한 문장이 강조된다.⁴⁾ 이 처럼 문학에서 나타나는 맥시멀리즘의 표출은 외관상 책의 두께나 권수 뿐 아니라 내용상에서도 배경이나 등장 인물의 수, 성격 등의 규모적인 면에서의 ‘많음’으로 뚜렷히 나타난다. 회화에서 맥시멀리즘은 팝 아트의 대담한 붓질과 콜라주⁵⁾ 기법, 실크스크린과 같은 작업을 하여 같은 이미지의 무한반복과 중립적 이미지의 사용을 많이 하였다. 또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주 소재로 하였으나 대중매체의 비판적 사고의 반영이 강하고 강렬한 색채에 의한 대비적 효과와 자극적 문구,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다채롭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의 복사, 실크스크린에 의한 반복적 대량생산,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에 의한 강조 등은 맥시멀리즘적 요소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큰 것이 아름답다’는 모토에서 비롯된 맥시멀리즘은 단순히 ‘많음’에 의한 표현이 아닌 장식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고, 최다, 최대, 거대주의를 추구하며 화려함과 장식성, 섬세함과 호화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는 개념에 의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www.interiorlg.com)

- 2) 김정연(2007),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3) John (Simmons, Jr) Barth: 1930~,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면서 그것을 직접 자신의 작품에 구현하려 했던 미국의 작가, 철학적 깊이와 복잡성을 매서운 풍자와 때로는 음탕한 유머에 결합시킨 소설들로 잘 알려져 있다.
- 4) 김옥동(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150, pp. 14-19
- 5) 콜라주(collage): 프랑스어로 붙이기라는 뜻. 신문지, 형질, 벽지, 인쇄물 또는 일상생활에서 취한 물건 등을 화판이나 캔버스에 붙여 만드는 미술 기법 (브리태니커)
- 6) 김정연(2007),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2. 맥시멀리즘의 형성배경

현대에 이르러 일반대중의 복식문화는 물량의 과잉공급에 의한 획일성의 탈피욕구와, 지구촌의 세계화에 따른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개성적이며 새로운 복식유형을 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식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디자이너들은 현대인들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⁷⁾ 90년대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은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라인을 추구했으나 21세기는 밀레니엄의 도래와 더불어 밝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무드의 패션이 부상하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직물로 옷을 만든다든지 직선적인 실루엣 그리고 무채색의 모노톤을 주로 사용한다. 소재로서는 인공적인 소재보다는 자연적인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며 장식성이 배제된 극도로 단순한 의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과 정제된 표현이 특징인데, 이러한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디자이너들은 다양성과 많음을 찬미하는 미학적 경향인 맥시멀리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감성은 새롭고, 신선하며, 폭 넓은 현대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포용하였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이라는 패션 경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자유로운 사고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장식적인 패션 경향인 맥시멀리즘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9.11테러와 미국-아프가니스탄 간 전쟁무드, 경기 침체 등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싶은 심리가 화려한 장식과 달콤하고 현란한 색채의 맥시멀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맥시멀리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통합적 문화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개화된 엘리트의 e-비즈니스맨(e-businessman), 두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는 하이브리드(hybrid)의 3가지 분류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이 형성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

소니의 창업 멤버이자 회장인 모리타 아키오는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을 혼합하는 기업 원리를 주창하면서 ‘글로벌로컬라이제이션(global localization)’을 줄여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를 의미한다면, 로컬라이제이션은 다분히 지역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기업 간 경쟁 환경이 이들 두 가지 요소가 스페셜라이제이션(specialization·특성화)이 충족된 상태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오늘날 대두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7) 유성호(2001) “현대의상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미지연구 -아방가르드 풍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지금까지 세계의 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화를 주창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지구촌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국가 단위의 개념이 사라지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지역화(localization)는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고개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병존하는 현상을 말하며, 세계화의 추진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성과 부합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설정되고 있다. 현대의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무대를 세계 시장으로 넓히는 동시에 어떻게 현지에 경영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인 총합을 진행하면 현지화의 문제가 일어나고 거꾸로 현지화가 너무 진행이 되면 전체로서의 세계적인 총합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이 두 가지 경영 문제를 동시에 극대화해야 한다. 즉 ‘사고와 전략은 글로벌하게, 행동과 운영은 로컬하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충돌할 수 있는 개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문화시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문화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수용하는 패션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다. 즉,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e-비즈니스맨 (e-businessman)

최근 패션 가에는 ‘뉴 서티(new thirty)’라는 신조어가 뜨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30대로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40-60대의 소비 세력이 줄어들면서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이들을 겨냥한 신제품들이 앞 다퉈 나오고 있다. ‘e 비즈니스맨’ 혹은 ‘보보스족⁹⁾’으로 불리는 30대 전후 이들은 일명 빌 게이츠 룩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즐겨 입었다.¹⁰⁾ 벤처 기업가들이 주로 입었으나 이 패션은 주5일 근무의 실시와 기업의 자율화 확장 확대 등에 따라 기존의 정통 신사복을 탈피하는 추세에 힘입어 차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e 비즈니스맨의 취향은 다양하며 이질적인 문화에도 배타적이지 않고 공존의 개념을 존중한다. 남성적인 옷과 여성적인 느낌의 옷을 조합하거나 복고풍과 모던함, 낭만적인 의상과 스포츠 의류를 조합시켜서 보헤미안적 감성과 부르조아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¹¹⁾ 또

8) 정은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글로벌 경영’의 성공사례/ CEO 리포트

9) 보보스(bobos): 부르조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 그들은 정보화 시대의 ‘개화된 엘리트’로서 60년대의 반문화주의와 80년대의 물질만능주의가 뒤엎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용어를 처음 쓴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보보스족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한쪽 발은 창의성의 보헤미안 세상에 있고 다른 쪽 발은 야망과 세속적 성공의 부르주아 영토에 있다’고 했다.

10) 정은숙·김신우(2002). “히피패션이 보보스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2(2), pp. 51-52

11) www.otnara.com

그들은 수많은 것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트렌드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의식주를 선택하고, 정형화된 스타일을 거부한다.¹²⁾ 이러한 취향은 바닥을 짝 채운 반들반들한 양탄자가 아니라, 무언가 이름모를 폴로 엮은 거칠고 작은 양탄자, 매끄러운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나무 장난감, 매끄럽고 화려한 도자기가 아니라 투박하고 질감 있는 도자기, 매끈매끈함 툴립이 아니라 거칠고 특이한 야생화이다.¹³⁾

이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E 비즈니스맨 스타일은 21세기 패션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수용되었고, 이들의 문화는 새로운 지위코드가 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3) 하이브리드 (hybrid)

하이브리드 현상은 19세기의 절충주의와 국제화의 규격화된 모더니즘을 거치며,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에 이르는 시대적 사조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¹⁴⁾ 하이브리드는 첫째, 두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異形)이라는 의미와 둘째, 두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¹⁵⁾ 하이브리드는 흔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다른 용어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하면 엔진과 다른 동력원을 조합시킨 차량으로, 엔진과 전기자동차가 결합하여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디자인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현상을 장르간 하이브리드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한 각각의 장르의 기능과 형태는 전체 혹은 일부분으로 남아 결합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¹⁶⁾

현대사회에서 하이브리드의 출현 배경은 냉전체계의 종식, 직업구조의 변동, 기술혁신 등의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변모와 탈산업사회의 출현과 반인종주의, 반성별주의, 반자본주의와 같은 다양한 민주주의적 투쟁을 상호 연결 짓는 것으로 글로벌화 과정과 함께 순수와 비 순수, 순종과 잡종,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중심과 주변 등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유체계에서 벗어남으로 가능해졌다.¹⁷⁾ 본래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것의 혼합으로서 이국적이라는 요소

12) 이은혜(2002), 뉴 보헤미안으로서 보보스 스타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13) 데이비드 브룩스(2000), 「보보스」 형선호 역, 동방미디어, p. 101

14) 김경란(2005),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2

1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6), Merrian Webster inc. USA, p. 47

16) 김자민(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7

혹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통한 다양성과 전통적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던 기존의 모든 법칙들이 혼합되어 표현되면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¹⁸⁾

따라서 하이브리드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새로움이라는 창조의 원천으로서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다문화시대의 복잡한 패션 트렌드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21세기 맥시멀 룩의 패션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III.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 룩

21세기 패션의 화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뉴튼 역학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자 내적인 풍요로움과 자연의 순수성을 찾기 시작하였다. 패션디자이너들은 설새 없었던 진보의 호흡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패션은 이러한 사상적 토대위에서 4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민속(ethnic)패션, 과거로의 회귀현상에 기인한 복고풍(retro)의 재현, 안정적이고 밝은 생활을 즐기려는 로맨틱(romantic)패션, 그리고 수공예적인 장식의 글리터링(glittering)패션의 표현이다.

1. 맥시멀 룩의 유형

1) 에스닉 스타일 (ethnic style)

최근 이라크 전쟁¹⁹⁾과 9.11테러²⁰⁾, 경제 불황 등 어수선한 심리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원초적인 인간 사회로 돌아가고픈 욕망 때문에 정신주의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복식이나 아프리카지역의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²¹⁾ 최근의 에스닉 패션의 특징적 경향으로는 히피적, 보헤미안적, 키치적 요소 등 다양한 이미지와 디자인적 요소가 상호 절충되어 다양한 감성과 시대성을 반영하며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이너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과 표현영역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적

17) 우주형(2006), “21세기 패션의 휴대가능성 시스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

18) 김정호(2001), “현대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19) 2003년 3월 20일-4월 14일까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20) 9.11 테러(미국대폭발테러사건):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 20분사이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테러로 인해 미국 뉴욕의 111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가 공격을 받은 대참사

21) 최영옥(2005),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p. 481

트렌드의 반영이기도 하다.²²⁾

<그림 1>은 Anna Sui의 작품으로 깃털과 가죽등의 자연적인 소재의 질감을 살린 프린지장식과 헤어밴드, 목걸이 등을 매치해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제시하였다. <그림 2>는 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마사이족의 비비드한 색채에 전통문양을 넣은 드레스에 토속적인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아프리카풍 에스닉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산업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연회귀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를 동경하여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²³⁾ <그림 3>은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의 특징적인 형태인 타이트한 실루엣과 차이니즈 칼라, 겨드랑이로 흐르는 트임과 매듭단추로 전통적인 요소를 재해석했다. <그림 4>는 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코카콜라·환타 빈 깡통으로 만든 캡, 여러 가지 형으로 만든 실버머리장식 등 현란한 색채와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기술과 스타일로 팝 에스닉 모드를 나타내었다.

21세기 맥시멀 룩의 에스닉 스타일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뒤섞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되고 있다. 핸드 메이드가 선호되며, 장인(craftsman)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들의 혼이 담긴 민속 공예품이 주목받고 있다. 민속적인 기법이 옷감에 사용되고, 천연의 생지와 자연적 질감이나 천연 소재 활용등의 방법으로 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점차 글로벌한 에스닉 모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시멀 룩은 인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편안함의 추구를 통해 인공적이며 기계화된 환경의 현대인들의 조형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Anna Sui 05S/S



<그림 2>
Jean-Paul Gaultier 05S/S



<그림 3>
Christian Dior 07S/S



<그림 4>
John Galliano 04F/W

22) 김영현·양취경(2005),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5(1), 통권 91호, p. 7

23) 최영옥, op. cit., p. 492

2) 복고 스타일 (retro style)

세기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 그리고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수를 불러일으켜²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정신세계 및 과거와 자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불러일으켜 ‘기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basic)’라는 레트로의 움직임이 전 세계의 패션계에 영향을 주면서 복고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²⁵⁾ 또한 이번 이라크 전쟁과 9.11테러 같은 암울한 시대상황에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복고현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림 5>는 Balenciaga의 작품으로 자켓의 칼라와 소매 끝단에 과도한 러플을 달아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근세양식의 복고풍디자인을 했다. <그림 6>은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남성적인 복장인 망토와 파이핑 기법을 사용한 상의를 착용하고, 하의에는 여성스러운 짧은 프릴이 달린 미니스커트를 착용하여 절충적인 복고풍을 보여주었다. <그림 7>은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드레스 밑단의 풍성한 프릴장식과 힙을 강조한 버슬 스타일²⁶⁾을 선보였다. <그림 8>은 Balenciaga의 작품으로 여러 층의 부채꼴 모양으로 과장된 러플칼라에 근세복식인 크리놀린²⁷⁾을 응용한 원피스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 이와 같이 엉덩이를 부풀린 인체의



<그림 5>
Balenciaga 06S/S



<그림 6>
McQueen 03S/S



<그림 7>
Christian Dior 04F/W



<그림 8>
Balenciaga 07S/S

24) 배수정(1991), “근세 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pp. 126-127

25) 김영현 · 양취경, op. cit., p. 5

26) 버슬 스타일은 스커트 뒷부분에 버슬(허리 받이)를 넣고 볼록하게 한 스타일을 말한다, 커다란 보 같은 것으로 힙 뒤의 윗부분을 볼록하게 한 느낌으로 만들거나 드레스의 스커트를 뒤로 묶든가 해서 힙을 강조한다. 크리놀린 스타일이 쇠퇴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 유행하였다.

27) 크리놀린 스타일은 나폴레옹 제2제정시대(1852-1870)는 제1제정시대의 무드 부활과 18세기 부르봉 왕조에 동경한 결과 새로운 로코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 특징은 크리놀린이라고 불리는 말털과 마의 혼방지로 만든 스커트나 고래수염이나 철사로 만든 고리로 스커트에 팻팻함을 갖게 한 실루엣이다.

인위적인 과장의 표현은 맥시멀 룩의 특징인 과장된 실루엣과 유희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과장을 시각적인 느낌으로 말할 때 거대하며, 강하고, 위엄 있고, 무거우며, 부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과장된 복식은 더욱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해 한층 확대되고 과장된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위를 확대하여 그 부분에 장식을 줌으로써 그 의복에 생명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미적 만족을 취하였다.²⁸⁾

그러므로 21세기 맥시멀 룩의 복고 스타일은 러플, 프릴, 레이스, 리본 등을 이용한 과도한 디테일 장식과 버슬, 크리놀린의 과장된 실루엣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미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된 디자인을 했다.

3) 로맨틱 스타일 (romantic style)

21세기의 사회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환적 시기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반면, 자아 개념이 붕괴되고 자아의 정체성이나 확실성이 모호해져 근원 없는 현대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분열된 주관성은 문화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²⁹⁾ 이에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어린시절에 대한 회상을 비롯한 환상과 동화, 신화 등과 같은 과거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문화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로맨틱 감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대패션의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³⁰⁾ 로맨틱 스타일은 밝고 장식적이며 리드미컬한 곡선을 중심으로 흐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아한 디자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환상적, 감성적, 외면적, 여성적, 감각적 등으로 표현되어져 정신적 측면을 배제한 감성적 측면이 돋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9>는 Valentino의 작품으로 하늘거리는 실크소재에 핑크의 사랑스러운 하트 무늬의 셔링을 만들어 로맨틱함을 강조했다. <그림 10>은 Dolce&Gabbana의 작품으로 목 둘레의 레이스와 치마에 러플장식을 한 흰색의 원피스에 골드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11>은 Anna Molinari의 작품으로 얇은 쉬폰을 여러 번 겹쳐 크고 작은 꽃 모양을 만들고 수술부분은 진주로 장식한 원피스를 선보였다. <그림 12>는 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어깨를 드러내고 잔잔한 꽃무늬의 소녀풍 드레스를 선보였다. 경기불황이나 전쟁시에 로맨틱 룩이 유행하는데 이것은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로맨틱 룩이 곧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다.³¹⁾ 흰색으로 평화를 기원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과 화려한 색채들로 행

28) 이수진(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變形)에 관한 연구- 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29) 김영현 · 양취경, op. cit., p. 2

30) 김영현 · 양취경, op. cit., p. 9



<그림 9>
Valentino 06S/S



<그림 10>
Dolce&Gabbana 06S/S



<그림 11>
Anna Molinari 07S/S



<그림 12>
Christian Lacroix 06S/S

복을 추구하고픈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맥시멀 룩의 로맨틱 스타일은 레이스 천의 섬세한 무늬, 비치는 투명소재,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무늬로 장식된 실크소재를 사용하고 러플, 프릴, 레이스, 플리츠 등 화려하고 우아한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하여 맥시멀 룩의 특징인 과도한 장식을 통해 여성적인 곡선과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낭만적이고 소녀 같은 차림을 함으로써 힘겨운 일상과 현실의 심각함을 잊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패션의 현실 도피적, 위안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글리터링 스타일 (glittering style)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변화속도가 빠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외감 등을 어루만져 줄 요소로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한 수공예적 장식에서 느껴지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패션이 등장했다. 글리터링 룩은 소재 자체가 빛나거나 혹은 비즈(유리나 도기 소재의 작은 구슬), 스팅글(금속이나 합성수지로 만든 얇은 조각), 큐빅, 크리스털 등 장식용 부자재들을 써서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는 의상을 말한다.

<그림 13>은 Paco Rabanne의 작품으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스팅글(spangle)을 매달아 빛에 의해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었다. 스팅글은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데다 빛을 받으면 그 어떤 소재보다 화려해 보인다. <그림 14>는 Louis Vuitton의 작품으로 크기, 모양, 색상이 다른 형태의 세퀸(sequins)³²⁾을 사용한 입체적인 작품이다. <그림 15>는 Blugirl의 작품으로 다이아몬드나

31) 양보라(2004),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7

32) 세퀸(sequins): 빛을 반사하는 작은 장식용 금속조각을 말하는데 원래는 베니스에서 만들어진 금화나 화폐모양의 장식품이었지만 현재는 스팅글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Paco Rabanne 05S/S



<그림 14>
Louis Vuitton 06S/S



<그림 15>
Blugirl 06S/S



<그림 16>
Versace 07S/S

다른 보석류 또는 준보석들과 흡사한 작은 유리조각들인 라인스톤(rhinestones)을 수놓은 원피스를 선보였다. 라인스톤은 직물에 매달려 거울과 같은 반짝임으로 빛을 반사한다. <그림 16>은 Versace의 작품으로 메탈릭한 인어 공주스타일의 골드 튜브 탑 드레스를 선보여 여성스러운 글리터링 룩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글리터링 룩은 ‘비즈나 스팅글을 손으로 매다는 수공예 과정이 첨가됨으로써 빈티지 감성을 덧칠해 준다. 한마디로 기성복 시대에 대량 복제품의 천편일률적인 느낌을 살짝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차별화 혹은 개성 표현 욕구를 만족 시킨다’는 설명이다. 패션의 지향점이 우아함 보다는 관능미나 대담성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있다. 시각을 자극하는 글리터링 룩의 독특한 효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³³⁾

현대인들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개성주의(personalism)의 영향으로 개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스타일이 중요시되면서 수공예적인 장식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21세기 맥시멀 룩의 글리터링 스타일은 과도한 디테일(비즈, 스팅글, 세퀸, 라인스톤) 장식으로 화려함을 마음껏 뽐내고, 화려한 장식으로 주목받고 싶은 현대인들을 돋보이게 해주며, 기계화·산업화된 시대에 인공적인 느낌이 아닌 수공예적인 느낌의 장식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2. 맥시멀 룩의 조형미

복식은 신체를 매개로 표현되나 현대 패션은 복식을 하나의 조형물로 인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복식을 인체구조에 적합하도록 구조화하지 않고

33) 한국일보, 2005. 06. 02

다른 예술처럼 조형적 표현을 위한 표현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⁴⁾ 따라서 맥시멀 룩의 조형미란 과장된 장식과 화려함을 추구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재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형적 의의를 갖는다.

1) 장식주의(ornamentalism)적 조형미

인간은 언제나 의복에서 편안함보다는 장식을 더 선호하였으며³⁵⁾ 루도스키(Rudofsky)³⁶⁾는 의복과 장식이 종종 ‘불안과 근본적인 무질서를 초월하는 즐거움’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³⁷⁾ 복식은 인간의 마음가짐과 도덕성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치장이거나 장식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장식을 함으로써 미를 통한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³⁸⁾ 복식에서의 장식은 의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의복 내부에 장식적 디자인이 첨가되면 의복 전체에 독창적인 면을 보완해 줄뿐만 아니라 미적 표현을 더해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

<그림 17>은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위부터 아래까지 그라데이션 된 러플로 치마 단에 여러 번 겹쳐 화려한 장식주의적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도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목 부분과 소매를 러플로 장식하고 풍성한 꽃송이와 잎의 오브제를 달아 화려하고 장식적인 드레스를 선보였다. <그림 19>는 Arkadius의 작품으로



<그림 17>
McQueen 03S/S



<그림 18>
McQueen 07S/S



<그림 19>
Arkadius 04S/S



<그림 20>
Manish Arora 07S/S

34) 성광숙(2002), “복식확대현상의 미적 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73

35) J. 앤더슨 블랙·매귀 가랜드(1997), 「세계패션사 I」, 윤길순 역, 자작 아카데미, p. 16

36) Bernard Rudofsky (1905. 4. 13~1988): 오스트리아 건축가

37) 이순홍(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 23

38) 메리볼프(1995), 「패션」, 양숙희 역, 경춘사, p. 5

최근에 일어난 전쟁·테러에 대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피를 상징하는 빨강꽃잎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그림 20>은 Manish Arora의 작품으로 나비를 주요 모티브로 어깨 셔링을 나비 날개처럼 형상화하였고, 꽃·새·곤충 등 화려한 자연의 문양을 프린트함으로써 새 천년의 밝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은 몸을 치장함으로서 자아를 표출하며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장식주의적 조형미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⁹⁾ 즉, ‘남과는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 욕구의 다른 표현으로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찬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작인 21세기에 가치를 중요시하며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수공예적인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맥시멀 룩은 장식주의적 조형미를 통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장식주의적 조형미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장식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수공예적인 디자인으로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주었다.

2) 전위주의(avant-garde)적 조형미

오늘날 현대 패션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획일화되어 가고, 유행만을 쫓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소비자가 선택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성표현을 위한 전위적인 방법으로 디자이너에 의해 아방가르드 패션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주류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문화적 상황에서 아방가르드 패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이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⁴⁰⁾

<그림 21>은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바디 페인팅을 응용해 나체에 가까운 의상을 선보였는데 원시적 세계로 돌아가고픈 퇴보적 유토피아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 황폐화되는 인간성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연과 비문명 세계에 대한 향수가 복식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도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속이 흰이 보이는 란제리 룩 위에 방독면을 착용함으로써 전쟁과 테러에 대한 공포를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림 23>은 Vivienne Westwood의 작품으로 가디건의를 가슴부분을 연결시켜 만듬으로 키치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위주의적 조형미는 패션의 이미지를 기발하고 대담하며 재미난 표현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그림 24>는 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여성의 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가슴을 도발적

39) 이순홍, op. cit., p. 26

40) 하영복(2000), “현대 의상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p. 194



<그림 21>
McQueen 03S/S



<그림 22>
McQueen 02F/W



<그림 23>
Westwood 04F/W



<그림 24>
Jean-Paul Gaultier 07S/S

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과장되게 표현한 드레스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전위주의적 조형미는 모던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적이고 비 논리, 비 이성, 무형식의 극단적인 표현양식으로 무제한적 허용을 허락하는 열린 개념의 미로써 새로운 추구하고 있다.⁴¹⁾ 따라서 21세기 맥시멀 룩의 전위주의적 조형미는 디자이너에게는 창조적 영감을 갖게 하며, 현대인에게는 실용적인 복식의 탈피로 복식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였다. 또한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복식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 및 활력을 주었다.

3) 다원주의(pluralism)적 조형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뿐 아니라 현실과 가상세계 조차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지적, 심리적 욕구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그 경계를 넘어 서로 융합되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⁴²⁾ 다원주의는 ‘모든 주체와 양식에 대한 열린 태도’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하나의 지배적인 운동이 존재하는 문화 이념이 아니라, 여러 경향이 같은 순간에 병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문화 이념이다. 즉, 어떤 양식에도 구분됨이 없는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이것인 동시에 저것이라는 이중성을 담고 있다.⁴³⁾

<그림 25>는 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인도 부처의 모습이 프린트된 오버사이즈 기모노 재킷에 아프리카식의 화장과 헤어스타일, 일본 꽃무늬가 들어간 프릴 스커트 등이 혼합된 현란

78) 엄소희·김문숙(2000),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2), p. 332

42) 김지연·이경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p. 9

43) 최영옥(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pp. 462-463

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림 26>은 Hussein Chalayan의 작품으로 형태가 모호한 미니드레스의 앞·옆·뒤 여러 곳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속에 입은 의복이 튀어 나와 보이게 하여 추와 미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의상 디자인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27>은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일본꽃무늬를 옅아트 처리한 기모노재킷에 팬츠에도 옅티컬 무늬를 넣어 옅아트와 일본 에스닉을 접목시켰다. <그림 28>은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핑크색의 눈화장, 산만하고 유치하게 장식된 코르셋과 끈으로 엮은 팬티, 프린지를 장식하여 너털거리는 상의와 붉은색 스타킹 등으로 키치적인 요소, 그런지, 속옷의 노출로 제2, 제3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다원주의적 조형미는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심리를 알아 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작품은 표면적 형식적인 한계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성을 부각시켜주었다는 점과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⁴⁾ 현대패션은 시대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장르의 다양한 이미지를 절충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조형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조형미는 가변적이고 새로우며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한 핵심이다.⁴⁵⁾

따라서 21세기 맥시멀 룩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조형미는 패션에서 기존 질서나 양식, 장르 간의 구분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것을 적절하게 종적·횡적으로 조화시킴으로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대패션의 다양화와 복잡화 경향을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그림 25>
John Galliano 03S/S



<그림 26>
Hussein Chalayan 03S/S



<그림 27>
McQueen 03F/W



<그림 28>
Christian Dior 01S/S

44) 최영옥, op. cit., p. 455

45) 김지연·이경희, op. cit., p. 16

4) 유희(humorous)적 조형미

‘인간은 오직 유희할 때만이 전적으로 인간이다.’⁴⁶⁾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놀이 요소가 문화적 과정 전반을 통해서 대단히 활발하게 작용하였고 또 그것은 많은 기본적 형태의 사회생활을 만들어내고 있음⁴⁷⁾을 고찰할 수 있다.⁴⁸⁾ 즐거움과 행복의 추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활성화로 보다 다양화, 개성화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미를 추구하여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미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의복에 유희성을 부여하고 있다.⁴⁹⁾

<그림 29>는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삐에로의 상징적인 의복 형태를 모방함으로써 대상이 지니고 있는 유희적인 이미지까지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그림 30>은 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의복에 실제 인체와 같은 크기의 누드를 프린트함으로써 착용자가 마치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현실을 벗어나는 엉뚱한 상상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그림 31>은 Viktor & Rolf의 작품으로 칼라를 겹쳐 입어 기존의 착장방식을 부정함으로써 기존 관념을 해체하는 즐거움을 준다. 칼라 형태를 하나의 미적 조형물로서 인정하고 과장을 통한 보다 독특한 조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는 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산만하고 유치한 종이인형 옷을 입은 것 같은 착각을 주어 과거 어린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그림 29>
Christian Dior 02S/S



<그림 30>
Jean-Paul Gaultier 04F/W



<그림 31>
Viktor & Rolf 03F/W



<그림 32>
John Galliano 00F/W

46) 양희석(1998), 「예술철학 上」, 자유문고, p. 40

47) Huizenga, J(1981), 「호모루덴스」, 김윤수 역, 서울: 까치, 1981, p. 261

48)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p. 76

49) 안세라·강병석(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조형 특성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7(2), p. 360

유희성에는 현실도피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데, 과장적 패션에서의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현대인들은 기계적인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유희적 쾌락과 함께 해방과 자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또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때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유희적 조형미는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익살이 섞여 있다.

따라서 21세기 맥시멀 룩의 유희적 조형미는 단순한 것에 대한 지루함에서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과장을 통한 변형, 왜곡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이를 유희적으로 즐기고자 하였다.

IV. 결 론

현대에 이르러 일반대중의 복식문화는 물량의 과잉공급에 의한 획일성의 탈피욕구와 지구촌의 세계화에 따른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개성적이며 새로운 복식유형을 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식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디자이너들은 현대 일반대중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형과 디자인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⁵⁰⁾ 따라서 현대인의 세분화된 기호나 다양한 감수성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맥시멀 룩이 등장 하였다. 맥시멀 룩은 리본과 레이스 장식, 러플, 프릴, 반짝이는 스팅글과 금속 등의 풍부한 장식에 감성적이며 화려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다양한 소재와 특히 여성적인 곡선과 세심함이 돋보인다. 또한, 색채의 향연이라 할 만한 화려한 색감과 신체의 과장과 왜곡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요소의 혼합을 추구하는 과잉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맥시멀 룩의 조형미는 첫째, 장식주의적 조형미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장식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수공예적인 디자인으로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주었다. 둘째, 전위주의적 조형미는 디자이너에게는 창조적 영감을 갖게 하며, 현대인에게는 실용적인 복식의 탈피로 복식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였다. 또한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복식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 및 활력을 주었다. 셋째, 다원주의적 조형미는 서로 다른 것을 적절하게 종적·횡적으로 조화시킴으로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대패션의 다양화와 복잡화 경향을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넷째, 유희적 조형미는 단순한 것에 대한 지루함에서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과장을 통한 변형, 왜곡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50) 유성호, op. cit., p. 1

유희와 흥미를 즐기고자 하였다. 따라서 새 천년에는 맥시멀 룩의 조형미가 화려한 색감과 디테일과 장식의 과도함, 수공예적인 기법, 실루엣의 과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이차원적인 요소가 인체가 지닌 삼차원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추구한다. 변형, 비대칭, 과장, 기하학, 볼륨감 등의 조각적인 요소가 재미있는 형태들과 과도함의 경이로운 조합을 통해 엄격함과 리듬감을 갖고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맥시멀 조형미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 트렌드 중의 하나인 맥시멀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로 21세기 패션디자이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변화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맥시멀 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내림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현대 패션의 특성인 다원화, 다양화, 복합화의 추세 속에서 맥시멀 룩은 다양함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미래 패션에서도 지속적인 전개가 예견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중 객관성 있는 분석은 유사한 연구 분야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란(2005),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현·양취경(2005),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5(1)
- 김호정·김순자(2005),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 김후란(2002), “패션에 나타난 퓨전이미지에 관한 연구 -Retro를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이경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 김정연(2007),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민(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2001), “현대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숙(2002), “복식확대현상의 미적 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變形)에 관한 연구 -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홍,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 이은혜(2003), “뉴 보헤미안으로서의 보보스 스타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세라·강병석(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조형 특성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7(2),
- 양보라(2004),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주형(2006), “21세기 패션의 휴대가능성 시스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호(2001) “현대의상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미지연구 -아방가르드 풍을 중심으로-”, 조선
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소희·김문숙(2000),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2),
- 정은숙·김신우(2002), “히피패션이 보보스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2(2)
- 최영옥(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 최영옥(2005), “현대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 배수정(1991), “근세 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 하영복, “현대 의상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김옥동(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150
- 양희석(1999), 「예술철학 上」, 서울: 자유문고
- 최병상(1990), 「조형」, 서울: 미술공론사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6), Merrian Webster inc. USA
- 데이비드 브룩스(2000), 「보보스」 형선호 역, 동방미디어
- J. 앤더슨 블랙, 매쥬 가랜드, 「세계패션사 I」, 윤길순 역, 자작 아카데미(서울)
- 메리볼프, 「패션」, 양숙희 역, 경춘사(서울)